

『서지학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A Study on *Bibliography Research Trends*

韓美鏡 (Han, Mi-Kyung)*

◁ 목 차 ▷

| | |
|--------------------|-------------|
| 1. 서 언 | 3.1 논문수 동향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2 연구주제 영역 |
| 1.2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 3.3 저자 동향 |
| 2. 연구동향 선행연구의 분석 | 4. 논 의 |
| 2.1 학술지별 연구동향 선행연구 | 5. 결 언 |
| 2.2 서지학 연구동향 선행연구 | <참고문헌> |
| 3. 연구동향의 분석 | |

< 초 록 >

이 연구는 『서지학연구』를 대상으로 서지학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1986-2015년의 30년간의 논문수와 공저 논문을 조사 분석하고, 2006-2015년의 10년간의 주제영역, 저자수, 핵심저자, 저자의 신분, 소속기관, 전공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이 연구 결과를 『서지학연구』 연구동향을 조사한 1992년, 1997년 및 2002년의 선행연구 내용 중 공저 논문, 저자의 직업, 소속기간, 전공 및 연구주제 영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교 소속의 서지학전공 교수진에 의하여 단독으로 판본학과 목록학 위주로 연구되어 왔던 동향이 현재 대학교 소속의 교수 외에 일부 타전공 저자들에 의하여 일반 및 응용분야와 판본학 등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저 현상과 연구기관 또는 다양한 정보제공센터 소속의 연구직과 대학원생 등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크진 않지만 저자 전공분야 다양화와 융합적 연구로의 발전 등이 나타났다.

要語: 서지학, 『서지학연구』, 연구동향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조교수(bib4u@kgu.ac.kr)

접수일: 2016년 2월 26일 최초심사일: 2016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bibliography research trend, based on the academic journal *Bibliography Research*. For this purpose, the number of articles and the articles of single or joint authorship published for the past three decades covering 1986 to 2015, the number of authors, core authors, their profiles and organizations of the authors, change in their majors and subject areas of the past 10 years covering 2006 to 2015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nalyz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studies of *Bibliography Research* conducted in 1992, 1997 and 2002 in the areas of previous studies of research trend, articles of co-authorship, occupations, service of affiliation with the organizations, their majors and research subject area.

As a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those of different majors as well as professors at universities are conducting researches in mainly general and applied areas or physical bibliography these days, while professors of bibliography major at universities conducted researches in the area of mainly physical bibliography and systematical bibliography with single authorship in the past. The phenomena of co-authorship and researches conducted jointly by research institutes, researchers of various information centers, and graduate students are on the increase. And diversification of authors' major fields and advancement into integrative researches in the field of bibliography was found out, albeit not significantly.

Key words: bibliography, *Bibliography Research*, research trend

1. 서 언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서지학은 문헌정보학의 주요 학문영역이자 국문학과 사학 및 문화재보존학 등의 전문 분야의 기초 학문영역이다. 서지학 관련 학회는 1947년 8월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이재욱과 부관장 박봉석의 발의로 최초로 한국서지학회로 발기되었으나 당시 학술지 발간은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1959년 10월 국립도서관 김상필 관장에 의하여 다시 한국서지학회가 다시 발기되고 1960년에 학술지 『서지(書誌)』가 발간되었으나 통권 3호로 막을 내렸다. 1968년 9월 당시 도서관학자들에 의하여 한국서지학연구회가 창립되고 학술지 『서지학(書誌學)』이 되었으나 1982년 1월 7호까지만 발간되었다.¹⁾ 이후 1985년 10월 서지학자들에 의하여 서지학회가 창립되고 이듬해 『서지학연구(書誌學研究)』가 창간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0년 6월 창립된 한국서지학회는 학회지 『계간서지학보(季刊書誌學報)』를 창간 운영하여 오다가 2013년 서지학회와 통합하여 학회명칭은 한국서지학회로 개칭하고 학술지는 『서지학연구』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1986년 서지학회에 의하여 창간된 『서지학연구』는 서지학 분야의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2015년 3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총 752편의 논문이 게재된 전문 학술지이다. 그동안 일부 학자에 의하여 서지학 분야 또는 『서지학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이 조사되었으나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기까지의 연구동향으로서 이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하고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학문분야의 지난 결과를 살펴봄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의 전문 학문영역의 하나인 서지학 분야의 연구 학술지인 『서지학연구』를 대상으로 지난 30년간의 연구 성과를 전수조사하고, 2006-2015년

1) 김상호, “한국의 서지학 연구동향,” 『書誌學研究』 8(1992. 12), 354-355.

의 10년간의 연구 주제영역, 저자의 신분, 소속기관, 서지학 전공 저자 및 타전공 저자들의 서지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1992년, 1997년 및 2002년의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서지학연구』 대상 연구동향 선행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여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국내 서지학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서지학연구』를 대상으로 서지학 연구동향 조사를 위하여 Excel 2014 버전을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서지학연구』 창간년인 1986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의 학술논문 752편을 대상으로 논문수 동향과 연구주제 영역 및 저자 동향을 중심으로 서지학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수 동향의 경우 1986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의 연도별 논문수와 단독 및 공저 논문수 및 서지학 전공과 타전공 저자수와 논문수들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논문수의 계산은 공저 논문은 1편으로 계산하였으며, 저자별 논문수와 연평균 논문편수 및 핵심저자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주제 영역의 경우 선행연구 연구동향과의 비교를 위하여 강순애의 서지학의 일반 및 응용, 교감학, 목록학, 판본학, 고문서, 고문헌관리, 도서관사, 기타관련연구 등의 8개 주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저자 동향의 경우 전공과 직업 및 소속기관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저자의 전공 확인은 게재 논문상의 저자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 한국연구재단 연구자검색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1) 그중 저자의 직업은 교수, 강사, 대학원생, 교육자(교사), 연구교수, 현장의 사서 등, 연구분야(연구원, 학예 연구사)로 구분하였으며, 공저논문의 저자의 경우 각 1인으로 조사하였다. 그중 대학원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학생 외의 석사 또는 박사로 저자사항이 표기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2) 저자의 전공은 서지학 전공과 타전공으로 구분하되,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고문서관리 전공 분야의 경우 서지학 전공자로 분류하였다. 3) 저자의 소속기관은 대학,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기록관, 산업체(서점 등),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연구상의 일부 제한점으로 『서지학연구』의 간기가 1986-1996년은 연간 1997-2003년과 2006년은 반년간, 2004-2005년과 2007-2013년은 1년에 3회 간행, 2014-2015년은 계간으로 간행되었기에 연도별 현황 분석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저자의 직업, 전공, 소속기관 및 연구주체의 경우 선행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2006-2015년의 10년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저자 직업의 경우 저자마다 다소 변화가 있으나 게재호 해당 논문상의 저자사항에 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동향 선행연구의 분석

연구동향 선행연구는 전체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세부 전공이나 주제분야별 연구동향, 학술논문이나 석·박사학위논문 또는 단행본 등의 자료 유형별 연구동향, 다중 또는 단종의 학술지 게재 논문 대상의 연구동향, 국제학술지(SCI 등) 등재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연구동향, 인용문헌 분석에 따른 연구동향, 현장연구를 통한 연구동향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중 이루어진 단종의 학술지별 연구동향과 『서지학연구』 또는 서지학 분야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학술지별 연구동향 선행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의 7종이 있다. 그중 단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학술지별 연구동향 조사 선행연구

| 학술지 | 서지사항 | 비고 |
|-------------|--|--|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강미희, 김정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2014), 457-48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1974-2013년 • 대상: 1,365편의 논문 • 분석: 연구주제, 공동연구 현황, 연구비 지원 유무, 연구자 소속지역 |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서은경, 이원경, 박은경, 이옥성.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통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최근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정보관리학회지와 비교하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2015), 315-3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2010-2014년 • 대상: 300편의 논문(+344편+283편) • 분석: 계량서지적 분석,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저자키워드, 지적구조 분석 • 특징: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와 비교 |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김성진. “국내 문헌정보학의 이론 활용 연구 동향 분석: 2010년-2014년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2015), 179-2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2010-2014년 • 대상: 344편의 논문 • 분석: 이론활용 관점 • 특징: 1984년-2003년까지 조사된 과거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종단 분석 |
| 정보관리학회지 | 서은경. “『정보관리학회지』 연구의 동향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7:4(2010), 7-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1984-2009년 • 대상: 825편의 논문 • 분석: 주제분포, 주제영역별 논문의 증감, 주제영역별 연도 분포, 표제어의 지적 구조 • 특징: 기간별 분석 |
| Archi-varia | 박희진. “Archivaria 리뷰를 통한 국의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2014), 99-1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09-2014년 • 대상: 75편의 논문 • 분석: 정량분석(연구자별 분포, 주제영역별 키워드 분포), 내용분석(핵심 키워드 추출 및 주요 주제영역) • 특징: 북미 등 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와의 비교 분석 |

이상의 표와 같이 단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조사한 5편의 선행연구 중 강미희, 김정현은 창간 40년을 맞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전수조사를 통해 주요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주제는 문헌

정보학일반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자료조직, 정보서비스, 정보학, 독서지도, 도서관경영, 서지학, 장서관리, 기록관리학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지원 여부는 428편이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이중 315편은 교내지원인 반면 나머지 108편은 정부지원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의 경향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전무했던 초창기와 달리 최근에는 303편으로 증가하였다. 연구자 소속지역은 대구, 경북에 집중되었던 초창기 현상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지역기반 학술지로 시작되었으나 전국규모 학술지로 성장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서은경 등은 최근 5년간 3개 학술지에 실린 총 927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계량서지학적 분석에서는 학술지간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중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는 정보서비스, 도서관경영과 독서교육이었으며 서베이 방법과 사례연구가 주로 사용되었고, ‘공공도서관과 독서 영역’, ‘대학도서관과 장서관리 영역’, ‘학교도서관과 정보활용 영역’이 최근의 핵심연구 영역임을 분석하였다.

김성진은 최근 5년간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344편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고, 1984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된 과거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종단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3.7%의 논문에서 평균 2.02회 이론을 활용하였고, 교육과 정보이용/탐색 주제영역에서의 이론 활용이 가장 활발하였다. 문헌정보학의 고유 이론은 31.9%, 사회과학 이론은 58.3% 활용되었다. 또한 과거와의 비교 결과 이론활용 연구가 질적으로 성장했고, 문헌정보학의 고유 이론을 활용하는 비중은 줄고 사회과학 분야, 특히 교육학과 심리학과의 연관성이 강해진 것을 분석하였다.

한편, 서은경은 정보학분야 학술지인 『정보관리학회지』를 대상으로 1984-1994년, 1995-2002년, 2003-2009년의 기간별 학술논문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주요 주제 영역은 ‘정보서비스’, ‘정보조직’ 그리고 ‘정보시스템’이며 소주제 영역은 도서관서비스, 이용자연구, 자동문헌처리, 도서관통합시스템 시소러스·온톨로지, 디지털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제어의 지적 구조 분석 결과, 핵심영역

은 정보검색이나 각종 도서관이나 시스템에 활용된 정보기술 기법이나 서비스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이에 대한 주제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박희진은 최근 6년간의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인 『Archivaria』에 실린 75편의 논문에 대한 정량분석으로 연구자별 분포, 주제영역별 키워드 분포를 조사하고, 내용분석으로 연구논문의 핵심 키워드 추출 및 기록관리학의 주요 주제영역에 대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학술지별 게재논문을 조사한 선행연구의 대상 학술지는 전문분야로서 정보학과 기록학 분야 외는 모두 문헌정보학 전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부 단종의 학술지의 연구동향을 타 학술지와 비교하거나 현재의 일정시기의 연구동향과 과거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국외의 연구동향과 국내의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2.2 서지학 연구동향 선행연구

서지학 분야 또는 서지학 전문 학술지인 『서지학연구』 대상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서지학 분야 연구동향 선행연구

| 대상 | 서 지 사 항 |
|------------|---|
| 종합 | 김상호. “한국의 서지학 연구동향.” 『書誌學研究』 8(1992), 353-362. |
| 중국, 일본, 서양 | 曹炯鎮. “東·西洋 書誌學의 研究領域 鳥瞰.” 『書誌學研究』 11(1995), 167-188. |
| 중국 | 한미경. “中國의 書誌學 研究 및 教育.” 『書誌學研究』 12(1996), 271-317. |
| 서지학연구 | 강순애. “韓國의 書誌學 研究 傾向: 『서지학연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14(1997), 1-21. |
| | 이란주, 임지혜. “한국의 서지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서지학회 발간의 書誌學 研究에 한정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1(2002), 315-336. |

이상의 표와 같이 조형진은 중국, 일본 및 서양의 교감학, 목록학, 판본학, 도서관사, 고문서학, 고서관리, 독서록 등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한 한국 서지학계의 재건과 국제협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그리고 한미경은 세부 주제영역별로 구분하여 중국의 서지학 연구와 교육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의 서지학 연구동향을 조사하고 있는 이들 선행연구를 제외하고, 국내 서지학 분야와 『서지학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서지학연구』 연구동향 선행연구

| 저자 | 연구년 | 범위 | 대상 | 분석 | 특징 |
|----------|------|-------------|---|---|--|
| 김상호 | 1992 | 1960-199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 150여편 • 논문: 602편 • 저서: 44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과 저서: 연대별 특징 • 논문: 연대별, 분야별(서지학 및 서적문화, 신라 고려 조선 문헌, 일제문헌, 현대 문헌, 외국문헌, 고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상별 연구동향 |
| 강순애 | 1997 | 1986-19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지학연구』 1-12집 • 122편의 논문 • 8,330개의 인용문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스문헌: 저자 유형과 소속기관, 연구의 주제 • 인용문헌: 인용횟수와 인용 문헌의존도, 주제별·자료별·언어별 인용패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서지학의 일반 및 응용, 교감학, 목록학, 판본학, 고문서, 고문헌 관리, 도서관사, 기타관련연구 • 34개 세분 주제 |
| 이란주, 임지혜 | 2002 | 2000-2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지학연구』 19-22집 • 51편의 논문 • 1,321개의 인용문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와 저자관련사항, 참고 문헌의 유형과 수, 학술지의 종류, 참고문헌의 발행국과 언어, 인용저자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저자관련사항,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학술지의 종류, 참고문헌의 발행국과 언어, 인용저자 사항 조사 • 강순애 연구와의 비교 |

이상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서지학연구』 대상의 서지학분야 연구동향 선행연구는 세 차례 이루어 졌다. 우선 김상호는 1961년부터 1991년 2월까지의 1) 학위논문의 경우 연대별 특징, 2) 학술논문의 경우 서지학회지(『서지학연구』, 『계간서지학보』), 도서관계의 각종 학술지, 역사학 국어국문학 등 한국학분야 학술지,

대학문집, 출판 인쇄 언론 분야의 각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서지학 및 서적문화, 신라 고려 조선 문헌, 일제문헌, 현대문헌, 외국문헌, 고문서를 구분하여 연대별 및 분야별 조사, 3) 저서의 경우 고금의 문헌에 대한 해제나 서목을 제외한 연구서와 개론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술논문의 연구동향의 경우 1) 발표 학술지의 경우 서지학회를 비롯한 도서관학관계 잡지 그리고 한국학분야 및 출판언론분야의 각종 학술잡지에 고르게 발표되고 있으나, 근래 도서관학관계 잡지의 경우 서지학회지에 집중되고 있다. 2) 저자의 경우 서지학계의 소수 중진학자에 한정되었으나 근래 소장연구자의 참여가 다소 확대되고 있다. 3) 내용의 경우 수록 학술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고, 근래 보다 세분되는 경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고문헌에 관한 것이 8할 가량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분석하였다.

강순애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서지학연구』에 실린 서지학분야의 논문의 연구영역, 소스문헌의 저자와 주제관련사항, 인용문헌의 주제, 언어, 자료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중 1) 저자유형은 122편 중 1편(0.8%)만이 공저였으며, 2) 저자소속 기관 유형의 경우 123명 중 대학/전문에 소속된 이들이 80명(65%), 도서관과 대학원생은 각각 15명씩으로 전체 12.19%, 회사/정부 그룹의 6명, 연구소 3개 기관(1.62%), 타과 소속의 교수는 5명(4.06%)으로 분석하였다. 3) 대학/전문그룹의 직급 유형은 교수, 조교수, 부교수, 시간강사, 전임강사 순으로 분석하였으며, 4) 주제의 경우 판본학(21건 17.21%), 목록학(14건 11.47%), 서지학의 일반 및 응용(10건 8.19%), 고문헌관리(9건 7.37%), 고문서(5건 4.09%), 도서관사(4건 3.27%), 교감학(3건 2.45%), 기타관련연구(5건 4.09%)²⁾로 분석하였다. 즉 한국의 서지학 연구자들은 판본학과 목록학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대의 새로운 이론체계에 의거하거나 문헌정보학과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연구의 특성은 인문과학적인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 이는 실제 6건으로 4.92%이다.

한편, 이란주, 임지혜는 2년간 『서지학연구』에 게재 논문과 인용문헌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강순애 논문과의 비교 결과 이전의 관련 연구들과 크게 두드러진 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많이 다루어진 주제 분야, 인용문헌 수, 인용된 문헌의 형태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으나 서지학의 인문학적인 성격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중 주제영역은 판본학 30건, 고문헌관리 8건, 목록학 6건, 도서관사 5건, 기타서지학 일반 및 응용이 각 1건의 순서대로 연구되었으며, 51명의 저자 중 중복 저자는 18명으로 대부분 교수, 소속기관은 대학교로 서지학계 연구자 층에 변화가 없음을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종합적 또는 세부 전공이나 주제분야의 경우 다양하고 다각적인 측면의 연구동향이 조사 분석되어온 것에 비하면 서지학 분야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의 연구동향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02년 이후의 연구동향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연구동향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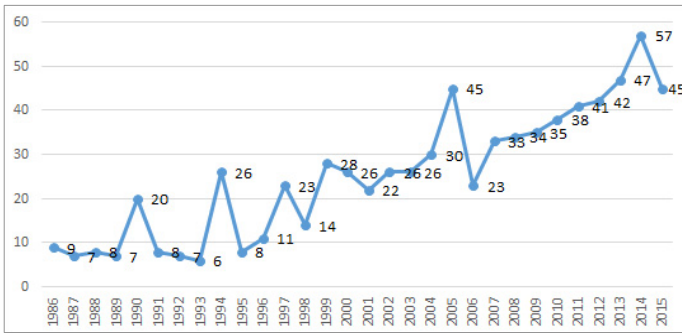
『서지학연구』 수록 논문을 대상으로 우선 1986-2015년의 30년간의 연도별 논문 게재수와 공저 논문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2006-2015년의 10년간의 연구주제 영역과 저자 동향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저자 동향의 경우 저자수와 저자별 논문수 및 핵심저자수, 저자의 전공 분야, 타전공 저자의 전공분야, 저자의 직업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1 논문수 동향

1986년-2015년의 30년간의 『서지학연구』 수록 논문 현황을 조사 정리하면 다음 <표 4>, <그림 1>과 같다.

<표 4> 1986-2015년의 『서지학연구』 연도별 논문 현황

| 년도 | 논문수(편) | 년도 | 논문수(편) | 년도 | 논문수(편) |
|--------|--------|------|--------|------|--------|
| 1986 | 9 | 1996 | 11 | 2006 | 23 |
| 1987 | 7 | 1997 | 23 | 2007 | 33 |
| 1988 | 8 | 1998 | 14 | 2008 | 34 |
| 1989 | 7 | 1999 | 28 | 2009 | 35 |
| 1990 | 20 | 2000 | 26 | 2010 | 38 |
| 1991 | 8 | 2001 | 22 | 2011 | 41 |
| 1992 | 7 | 2002 | 26 | 2012 | 42 |
| 1993 | 6 | 2003 | 26 | 2013 | 47 |
| 1994 | 26 | 2004 | 30 | 2014 | 57 |
| 1995 | 8 | 2005 | 45 | 2015 | 45 |
| 총 752편 | | | | | |



<그림 1> 연도별 논문수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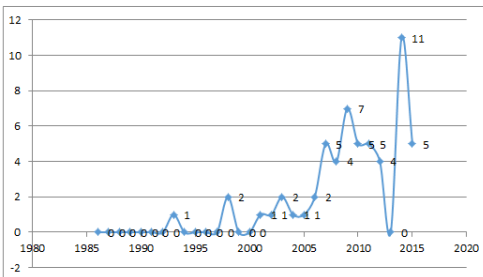
1986년-2015년의 30년간의 『서지학연구』 수록 논문수는 총 752편으로 매해 평균 약 25편(25.0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다만 1990년, 1994년 등과 같이 정년퇴임 기념호의 경우 보다 더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간기가 달라짐에 따라 논문수에도 변화가 있다. 즉 『서지학연구』의 간기가 연간이었던 1986-1996년은 총 120편 평균 약 11편(10.91편), 반년간이었던 1998-2003년과 2006년은 총 188편 평균 23.5편, 1년에 3회 간행하였던 2004-2005년과 2007-2013년은 총 345편으로 평균 약 38편(38.33편)이 있으며, 계간으로 간행되던 2014-2015년은

총 102편 평균 51편이다. 30년간 평균 약 25편의 논문이 매해 게재되었으나 간기별로 살펴보면 간기가 증가할수록 논문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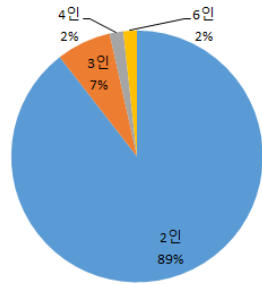
다음으로 연도별 공저 논문 현황을 조사 정리하면 다음의 <표 5>, <그림 2>, <그림 3>과 같다.

<표 5> 연도별 공저 논문 현황

| 년도 | 공저논문수 | 공저현황 | 년도 | 공저논문수 | 공저현황 |
|------|-------|-------|------|-------|---------------------|
| 1986 | 0 | - | 2001 | 1 | 2인 1편 |
| 1987 | 0 | - | 2002 | 1 | 2인 1편 |
| 1988 | 0 | - | 2003 | 2 | 2인 1편, 3인 1편 |
| 1989 | 0 | - | 2004 | 1 | 2인 1편 |
| 1990 | 0 | - | 2005 | 1 | 2인 1편 |
| 1991 | 0 | - | 2006 | 2 | 2인 1편, 4인 1편 |
| 1992 | 0 | - | 2007 | 5 | 2인 5편 |
| 1993 | 1 | 2인 1편 | 2008 | 4 | 2인 4편 |
| 1994 | 0 | - | 2009 | 7 | 2인 7편 |
| 1995 | 0 | - | 2010 | 5 | 2인 4편, 3인 1편 |
| 1996 | 0 | - | 2011 | 5 | 2인 5편 |
| 1997 | 0 | - | 2012 | 4 | 2인 4편 |
| 1998 | 2 | 2인 2편 | 2013 | 0 | - |
| 1999 | 0 | - | 2014 | 11 | 2인 8편, 3인 2편, 6인 1편 |
| 2000 | 0 | - | 2015 | 5 | 2인 5편 |
| 총 | | | | 57 | |



<그림 2> 연도별 공저 논문수



<그림 3> 공저 논문의 저자수 비율

이상의 표와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1986년 이래 1990년대까지 대부분은 단독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93과 1998년에 1-2편의 공저 논문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공저의 현상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최대 11편의 공저 논문이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57편 중 약 19.3%이다. 공저의 저자수를 보면 2인에서 6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중 2인의 공저가 대다수로 89%이다. 공저 논문의 현상은 인문학적인 성격의 서지학 분야의 연구가 어느 정도 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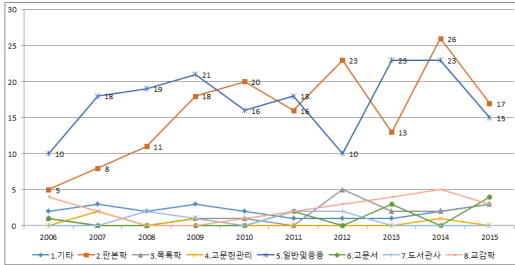
3.2 연구주제 영역

연구주제 영역의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2006년-2015년까지의 10년간을 대상으로 하고 강순애의 8개 주제영역인 판본학, 목록학, 서지학일반 및 응용, 고문헌관리, 고문서, 도서관사, 교감학, 기타관련연구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표 6>, <그림 4>,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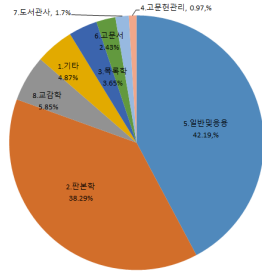
<표 6> 연도별 연구주제 현황

| 년도 | 기타 | 판본학 | 목록학 | 고문헌 관리 | 일반 및 응용 | 고문서 | 도서 관사 | 교감학 | 합 | 공저 | 총합 |
|-------|------|-------|------|-----------|------------|------|----------|------|-----|----|-----|
| 2006 | 2 | 5 | 1 | 0 | 10 | 1 | 0 | 4 | 23 | 4 | 27 |
| 2007 | 3 | 8 | 0 | 2 | 18 | 0 | 0 | 2 | 33 | 5 | 38 |
| 2008 | 2 | 11 | 0 | 0 | 19 | 0 | 2 | 0 | 34 | 4 | 38 |
| 2009 | 3 | 18 | 1 | 1 | 21 | 0 | 1 | 0 | 45 | 7 | 52 |
| 2010 | 2 | 20 | 1 | 0 | 16 | 0 | 0 | 1 | 40 | 4 | 44 |
| 2011 | 1 | 16 | 0 | 0 | 18 | 2 | 2 | 2 | 41 | 6 | 47 |
| 2012 | 1 | 23 | 5 | 0 | 10 | 0 | 2 | 3 | 44 | 2 | 46 |
| 2013 | 1 | 13 | 2 | 0 | 23 | 3 | 0 | 4 | 46 | 1 | 47 |
| 2014 | 2 | 26 | 2 | 1 | 23 | 0 | 0 | 5 | 59 | 15 | 74 |
| 2015 | 3 | 17 | 3 | 0 | 15 | 4 | 0 | 3 | 45 | 5 | 50 |
| 합 | 20 | 157 | 15 | 4 | 173 | 10 | 7 | 24 | 410 | 53 | 463 |
| 비율(%) | 4.87 | 38.29 | 3.65 | 0.97 | 42.19 | 2.43 | 1.7 | 5.85 | - | - | - |

『서지학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그림 4> 연구주제 영역별 비율



<그림 5> 연구주제 영역별 전개

이상의 표와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연구주제는 일반 및 응용분야가 가장 많아 173편으로 약 42%이며, 다음으로 판본학이 157편으로 약 38%이다. 그 외 교감학, 기타, 목록학, 고문서, 도서관사 및 고문헌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본학과 목록학과 같은 서지학의 주요 영역과 고문서와 고문헌과 같은 형태별 연구 외에 일반 및 응용분야의 연구가 많이 조사된 것은 서지학 분야 연구의 응용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타의 경우 기록학, 독서, 서예 등의 주제가 연구되었으며, 이는 연구 주제의 확장으로도 볼 수 있다.

3.3 저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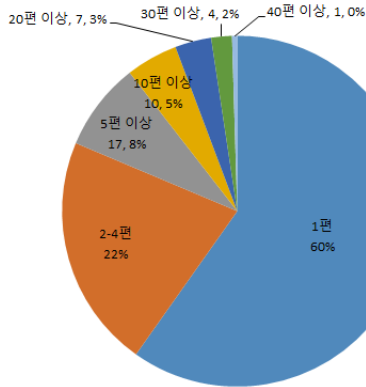
저자의 동향과 관련하여 1986-2015년까지의 30년간의 1) 저자수와 저자별 논문수 외에 2006-2015년까지의 10년간의 2) 저자의 전공분야와 타전공 저자의 전공분야, 3) 저자의 직업, 4) 저자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1) 저자수와 저자별 논문수

1986-2015년의 30년간의 『서지학연구』 수록 논문은 총 752편이나 공저의 각 저자를 1인으로 계산하면 총 853명의 저자가 조사되었다. 이를 다시 중복저자별 논문 편수를 분리 정리하면 실제적인 저자수는 209명이며, 정리하면 다음 <표 7>, <그림 6>과 같다.

<표 7> 논문 편수별 저자 현황

| 편수 | 서지학 전공 저자 | 타전공 | 명 | 편 |
|--------|---|----------|-----|-----|
| 40편 이상 | 강순애 | - | 1 | 43 |
| 30-39편 | 김성수, 박문열, 송일기, 조형진 | - | 4 | 149 |
| 20-29편 | 김중권, 남권희, 리상용, 배현숙, 오용섭, 유부현, 한미경 | - | 7 | 170 |
| 10-19편 | 김상호, 김순희, 김치우, 노기춘, 송정숙, 옥영정, 윤상기, 윤인현, 정선영 | 권희경 | 10 | 137 |
| 5-9편 | 강혜영, 김기화, 김동환, 김봉희, 김선남, 김종천, 손계영, 신승운, 심우준, 안미경, 안상우, 우진웅, 이재정, 정현욱, 천혜봉 | 김수천, 정현숙 | 17 | 104 |
| 2-4편 | - | - | 45 | 125 |
| 1편 | - | - | 125 | 125 |
| 총 | 36 | 3 | 209 | 853 |



<그림 6> 논문 편수별 저자 비율

이상의 표와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1편의 논문을 쓴 저자는 125명으로 60%이며, 저자 1인 평균 논문수는 4.08편이다. 그러나 1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핵심 저자는 22명으로 총 125명 중 17.6%이며, 이들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 편수는 총 499편, 약 58.5%이다. 한편 5편 이상의 논문 저자는 대부분 서지학 전공 저자로 총 39명 중 36명으로 92.3%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전공 저자도 3명으로 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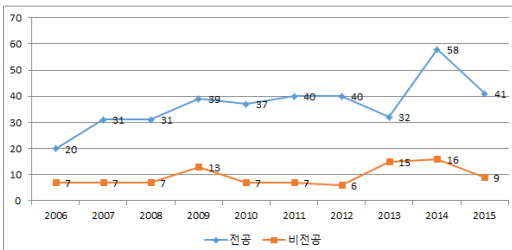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10편 이상 논문을 연구한 핵심저자와 5편 이상의 논문을 연구한 저자 중에는 타전공 저자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2) 저자의 전공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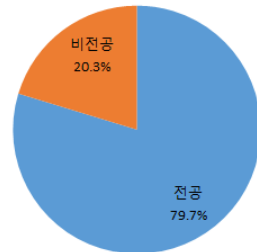
공저 논문의 각 저자를 개별 저자로 계산하고 2006-2015년의 10년간 저자 중 서지학 전공 저자와 타전공 저자를 정리하면 다음 <표 8>, <그림 7>, <그림 8>과 같다.

<표 8> 연도별 서지학 전공 저자와 타전공 저자의 현황

| 년도 | 전공 | 비율(%) | 비전공 | 비율(%) | 합 |
|------|-----|-------|-----|-------|-----|
| 2006 | 20 | 74 | 7 | 26 | 27 |
| 2007 | 31 | 81.6 | 7 | 18.4 | 38 |
| 2008 | 31 | 81.6 | 7 | 18.4 | 38 |
| 2009 | 39 | 75 | 13 | 25 | 52 |
| 2010 | 37 | 84.1 | 7 | 15.9 | 44 |
| 2011 | 40 | 85.1 | 7 | 14.9 | 47 |
| 2012 | 40 | 87 | 6 | 13 | 46 |
| 2013 | 32 | 68.1 | 15 | 31.9 | 47 |
| 2014 | 58 | 78.4 | 16 | 21.6 | 74 |
| 2015 | 41 | 82 | 9 | 18 | 50 |
| 합/평균 | 369 | 79.7 | 94 | 20.3 | 463 |



<그림 7> 연도별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전개 현황



<그림 8> 전공 저자와 타전공 저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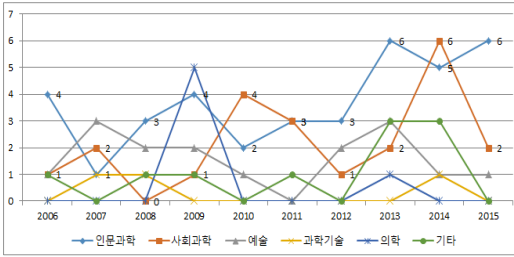
이상의 표와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10년간 총 저자 463명 중 서지학 전공 저자는 369명으로 79.7%이며, 타전공 저자는 94명으로 20.3%이다. 이는 과거 주로 서지학 전공 저자에 의하여 연구되어져 온 것으로 조사된 선행연구와는 조금 다른 전개 양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조자의 전공분야가 어느 정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7>에서 나타나듯이 10년간 타전공 저자는 매해 평균 약 9.4명으로 저자 10명 중 약 1명은 타전공 저자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타전공 저자의 전공분야를 조사 정리하면 다음 <표 9>,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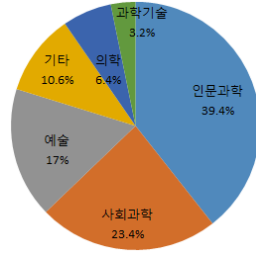
<표 9> 타전공 저자의 전공 분야 현황

| | 분야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 | 비율(%) |
|------|--------|------|------|------|------|------|------|------|------|------|------|----|-------|
| 인문과학 | 국문 | 2 | 0 | 1 | 0 | 0 | 0 | 1 | 2 | 3 | 2 | 11 | 11.7 |
| | 중국근대사 | 1 | 1 | 0 | 1 | 0 | 0 | 0 | 0 | 0 | 0 | 3 | 3.2 |
| | 역사 | 0 | 0 | 1 | 1 | 1 | 0 | 1 | 1 | 1 | 3 | 9 | 9.6 |
| | 민속학 | 0 | 0 | 0 | 0 | 1 | 0 | 0 | 1 | 0 | 0 | 2 | 2.1 |
| | 한문학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1 | 1.1 |
| | 문정 | 0 | 0 | 1 | 0 | 0 | 3 | 1 | 2 | 0 | 0 | 7 | 7.4 |
| | 기록학 | 1 | 0 | 0 | 2 | 0 | 0 | 0 | 0 | 0 | 1 | 4 | 4.3 |
| 사회과학 | 법 | 0 | 0 | 0 | 1 | 1 | 0 | 0 | 0 | 0 | 0 | 2 | 2.1 |
| | 언론, 정보 | 0 | 1 | 0 | 0 | 1 | 2 | 1 | 0 | 2 | 1 | 8 | 8.5 |
| | 문화재보존학 | 1 | 1 | 0 | 0 | 0 | 0 | 0 | 1 | 4 | 0 | 7 | 7.4 |
| | 불교 | 0 | 0 | 0 | 0 | 2 | 1 | 0 | 1 | 0 | 1 | 5 | 5.3 |
| 예술 | 회화 | 0 | 1 | 1 | 0 | 0 | 0 | 0 | 1 | 0 | 0 | 3 | 3.2 |
| | 서예 | 0 | 1 | 1 | 2 | 0 | 0 | 0 | 1 | 1 | 1 | 7 | 7.4 |
| | 미술사 | 1 | 1 | 0 | 0 | 1 | 0 | 2 | 1 | 0 | 0 | 6 | 6.4 |
| 과기 | 과학기술사 | 0 | 1 | 1 | 0 | 0 | 0 | 0 | 0 | 1 | 0 | 3 | 3.2 |
| 의학 | 의사학 | 0 | 0 | 0 | 3 | 0 | 0 | 0 | 1 | 0 | 0 | 4 | 4.3 |
| | 한의학 | 0 | 0 | 0 | 2 | 0 | 0 | 0 | 0 | 0 | 0 | 2 | 2.1 |
| 기타 | 미상 | 1 | 0 | 1 | 1 | 0 | 1 | 0 | 3 | 3 | 0 | 10 | 10.7 |
| | 합 | 7 | 7 | 7 | 13 | 7 | 7 | 6 | 15 | 16 | 9 | 94 | 100 |

『서지학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그림 9> 연도별 비전공자의 전공 분야



<그림 10> 비전공자의 전공분야 비율

이상의 표와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타전공 저자의 전공분야는 크게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의학, 과학기술 등 분야이다. 대체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분야 전공자의 참여가 많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예술, 기타 의학 및 과학기술 분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무형문화재 제1010호 금속활자장 전수교육 조교, 일본 궁내청 정창원사무소 소속 저자를 포함하였다. 전체적으로 2009년과 2013-4년에 가장 많은 타전공 저자들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중국근대사, 역사, 미술사, 과학기술사와 같은 역사분야와 민속학, 문화재보존학과 같은 전통적 분야 등의 전공분야가 나타났다. 한편, <그림 9>와 같이 연도별 타전공 저자의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인문과학 분야의 저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체적으로 조사되어진 전공분야 저자의 전개가 일률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저자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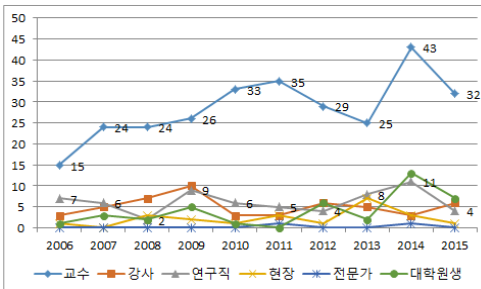
저자 직업의 경우 크게 교수, 강사, 연구원과 학예연구사 등의 연구직,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현장직, 무형문화재 제1010호 금속활자장 전수교육조교 등의 전문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중이나 수료인 대학원생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 <표 10>, <표 11>,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표 10> 저자의 연도별 및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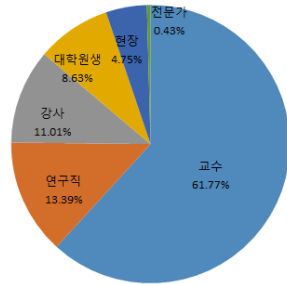
| 년도 | 분류 | 분류총합 | 비율(%) | 년도 | 분류 | 분류총합 | 비율(%) |
|------|------|------|-------|------|------|------|-------|
| 2006 | 교수 | 15 | 55.6 | 2011 | 교수 | 35 | 74.5 |
| | 강사 | 3 | 11.1 | | 강사 | 3 | 6.3 |
| | 연구직 | 7 | 25.9 | | 연구직 | 5 | 10.6 |
| | 현장 | 0 | 0 | | 현장 | 3 | 6.4 |
| | 전문가 | 1 | 3.7 | | 전문가 | 0 | 0 |
| | 대학원생 | 1 | 3.7 | | 대학원생 | 1 | 2.1 |
| | 합 | 27 | 100 | | 합 | 47 | 99.9 |
| 2007 | 교수 | 24 | 63.2 | 2012 | 교수 | 29 | 63 |
| | 강사 | 5 | 13.2 | | 강사 | 6 | 13 |
| | 연구직 | 6 | 15.8 | | 연구직 | 4 | 8.7 |
| | 현장 | 0 | 0 | | 현장 | 1 | 2.2 |
| | 전문가 | 0 | 0 | | 전문가 | 0 | 0 |
| | 대학원생 | 3 | 7.9 | | 대학원생 | 6 | 13 |
| | 합 | 38 | 100.1 | | 합 | 46 | 99.9 |
| 2008 | 교수 | 24 | 63.2 | 2013 | 교수 | 25 | 53.2 |
| | 강사 | 7 | 18.4 | | 강사 | 5 | 10.6 |
| | 연구직 | 2 | 5.3 | | 연구직 | 8 | 17 |
| | 현장 | 3 | 7.9 | | 현장 | 7 | 14.9 |
| | 전문가 | 0 | 0 | | 전문가 | 0 | 0 |
| | 대학원생 | 2 | 5.3 | | 대학원생 | 2 | 4.3 |
| | 합 | 38 | 100.1 | | 합 | 47 | 100 |
| 2009 | 교수 | 26 | 50 | 2014 | 교수 | 43 | 58.1 |
| | 강사 | 10 | 19.2 | | 강사 | 3 | 4.1 |
| | 연구직 | 9 | 17.3 | | 연구직 | 11 | 14.9 |
| | 현장 | 2 | 3.8 | | 현장 | 3 | 4.1 |
| | 전문가 | 0 | 0 | | 전문가 | 1 | 1.4 |
| | 대학원생 | 5 | 9.6 | | 대학원생 | 13 | 17.6 |
| | 합 | 52 | 99.9 | | 합 | 74 | 100.2 |
| 2010 | 교수 | 33 | 75 | 2015 | 교수 | 32 | 64 |
| | 강사 | 3 | 6.8 | | 강사 | 6 | 12 |
| | 연구직 | 6 | 13.6 | | 연구직 | 4 | 8 |
| | 현장 | 1 | 2.3 | | 현장 | 1 | 2 |
| | 전문가 | 0 | 0 | | 전문가 | 0 | 0 |
| | 대학원생 | 1 | 2.3 | | 대학원생 | 7 | 14 |
| | 합 | 44 | 100 | | 합 | 50 | 100 |
| 총 | 463명 | | | | | | |

<표 11> 연도별 저자의 직업 현황

| 년도 | 교수 | 강사 | 연구직 | 현장 | 전문가 | 석박 | 합 | 비율 |
|------|-------|-------|-------|------|------|------|-------|-------|
| 2006 | 15 | 3 | 7 | 1 | 0 | 1 | 27 | 5.83 |
| 2007 | 24 | 5 | 6 | 0 | 0 | 3 | 38 | 8.2 |
| 2008 | 24 | 7 | 2 | 3 | 0 | 2 | 38 | 8.2 |
| 2009 | 26 | 10 | 9 | 2 | 0 | 5 | 52 | 11.23 |
| 2010 | 33 | 3 | 6 | 1 | 0 | 1 | 44 | 9.5 |
| 2011 | 35 | 3 | 5 | 3 | 1 | 0 | 47 | 10.15 |
| 2012 | 29 | 6 | 4 | 1 | 0 | 6 | 46 | 9.93 |
| 2013 | 25 | 5 | 8 | 7 | 0 | 2 | 47 | 10.15 |
| 2014 | 43 | 3 | 11 | 3 | 1 | 13 | 74 | 15.98 |
| 2015 | 32 | 6 | 4 | 1 | 0 | 7 | 50 | 10.79 |
| 합 | 286 | 51 | 62 | 22 | 2 | 40 | 463 | 99.96 |
| 비율 | 61.77 | 11.01 | 13.39 | 4.75 | 0.43 | 8.63 | 99.98 | - |



<그림 11> 연도별 저자의 직업 전개



<그림 12> 저자 직업별 비율

이상의 표와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저자의 직업은 교수가 가장 많아 486명 중 286명으로 약 61.8%이며, 다음으로 연구직이 62명으로 13.4%이다. 그 외의 경우 <그림 11>에 의하면 강사, 대학원생, 현장의 사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자 중 강사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학원생의 비율이 변화는 있지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자 중 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선행연구에 비하면 그 외 직업의 저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저자의 소속기관

저자의 소속기관을 2006-2015년까지의 10년간을 대상으로 대학교,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과학관, 연구기관, 산업체, 학교, 기타, 무소속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12>, <표 13>, <그림 13>, <그림 14>와 같다.

<표 12> 저자의 연도별 및 소속기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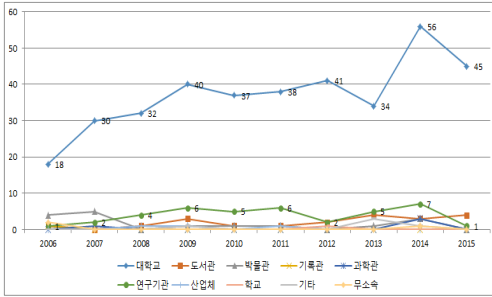
| 년도 | 기관 | 합 | 비율(%) | 년도 | 기관 | 합 | 비율(%) |
|------|------|----|-------|------|-------|----|-------|
| 2006 | 대학교 | 18 | 66.7 | 2011 | 대학교 | 38 | 80.9 |
| | 도서관 | 1 | 3.7 | | 도서관 | 1 | 2.1 |
| | 박물관 | 4 | 14.8 | | 박물관 | 1 | 2.1 |
| | 기록관 | 1 | 3.7 | | 기록관 | 0 | 0 |
| | 과학관 | 0 | 0 | | 과학관 | 0 | 0 |
| | 연구기관 | 1 | 3.7 | | 연구기관 | 6 | 12.7 |
| | 산업체 | 0 | 0 | | 산업체 | 1 | 2.1 |
| | 학교 | 0 | 0 | | 학교 | 0 | 0 |
| | 기타 | 0 | 0 | | 기타 | 0 | 0 |
| | 무소속 | 2 | 7.4 | | 무소속 | 0 | 0 |
| | 합 | 27 | 100 | | 합 | 47 | 99.9 |
| 2007 | 대학교 | 30 | 78.9 | 2012 | 대학교 | 41 | 89.1 |
| | 도서관 | 0 | 0 | | 도서관 | 2 | 4.3 |
| | 박물관 | 5 | 13.2 | | 박물관 | 0 | 0 |
| | 기록관 | 0 | 0 | | 기록관 | 0 | 0 |
| | 과학관 | 1 | 2.6 | | 과학관 | 0 | 0 |
| | 연구기관 | 2 | 5.3 | | 연구기관 | 2 | 4.3 |
| | 산업체 | 0 | 0 | | 산업체 | 0 | 0 |
| | 학교 | 0 | 0 | | 학교 | 1 | 2.2 |
| | 기타 | 0 | 0 | | 기타 | 0 | 0 |
| | 무소속 | 0 | 0 | | 무소속 | 0 | 0 |
| | 합 | 38 | 100 | | 합 | 46 | 99.9 |
| 2008 | 대학교 | 32 | 84.2 | 2013 | 대학교 | 34 | 72.3 |
| | 도서관 | 1 | 2.6 | | 도서관 | 4 | 8.5 |
| | 박물관 | 0 | 0 | | 박물관 | 1 | 2.1 |
| | 기록관 | 0 | 0 | | 기록관 | 0 | 0 |
| | 과학관 | 0 | 0 | | 과학관 | 0 | 0 |
| | 연구기관 | 4 | 10.5 | | 연구기관 | 5 | 10.6 |
| | 산업체 | 1 | 2.6 | | 산업체 | 0 | 0 |
| | 학교 | 0 | 0 | | 학교 | 0 | 0 |
| | 기타 | 0 | 0 | | 기타정창원 | 3 | 6.4 |
| | 무소속 | | | | 무소속 | 0 | 0 |
| | 합 | 38 | 99.9 | | 합 | 47 | 99.9 |

『서지학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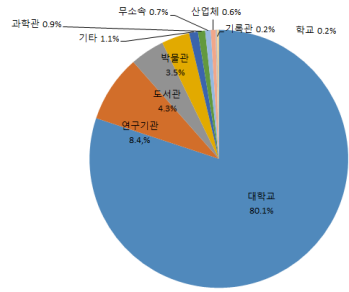
| 년도 | 기관 | 합 | 비율(%) | 년도 | 기관 | 합 | 비율(%) |
|------|------|----|-------|------|-------|----|-------|
| 2009 | 대학교 | 40 | 76.9 | 2014 | 대학교 | 56 | 75.7 |
| | 도서관 | 3 | 5.8 | | 도서관 | 3 | 4 |
| | 박물관 | 1 | 1.9 | | 박물관 | 3 | 4 |
| | 기록관 | 0 | 0 | | 기록관 | 0 | 0 |
| | 과학관 | 0 | 0 | | 과학관 | 3 | 4 |
| | 연구기관 | 6 | 11.5 | | 연구기관 | 7 | 9.5 |
| | 산업체 | 1 | 1.9 | | 산업체 | 0 | 0 |
| | 학교 | 0 | 0 | | 학교 | 0 | 0 |
| | 기타 | 1 | 1.9 | | 기타MBC | 1 | 1.4 |
| | 무소속 | 0 | 0 | | 무소속 | 1 | 1.4 |
| | 합 | 52 | 99.9 | | 합 | 74 | 100 |
| 2010 | 대학교 | 37 | 84 | 2015 | 대학교 | 45 | 90 |
| | 도서관 | 1 | 2.3 | | 도서관 | 4 | 8 |
| | 박물관 | 1 | 2.3 | | 박물관 | 0 | 0 |
| | 기록관 | 0 | 0 | | 기록관 | 0 | 0 |
| | 과학관 | 0 | 0 | | 과학관 | 0 | 0 |
| | 연구기관 | 5 | 11.4 | | 연구기관 | 1 | 2 |
| | 산업체 | 0 | 0 | | 산업체 | 0 | 0 |
| | 학교 | 0 | 0 | | 학교 | 0 | 0 |
| | 기타 | 0 | 0 | | 기타 | 0 | 0 |
| | 무소속 | 0 | 0 | | 무소속 | 0 | 0 |
| | 합 | 44 | 100 | | 합 | 50 | 100 |

<표 13> 연도별 저자의 소속기관 현황

| 년도 | 대학교 | 도서관 | 박물관 | 기록관 | 과학관 | 연구기관 | 산업체 | 학교 | 기타 | 무소속 | 합 |
|-------|------|-----|-----|-----|-----|------|-----|-----|-----|-----|-----|
| 2006 | 18 | 1 | 4 | 1 | 0 | 1 | 0 | 0 | 0 | 2 | 27 |
| 2007 | 30 | 0 | 5 | 0 | 1 | 2 | 0 | 0 | 0 | 0 | 38 |
| 2008 | 32 | 1 | 0 | 0 | 0 | 4 | 1 | 0 | 0 | 0 | 38 |
| 2009 | 40 | 3 | 1 | 0 | 0 | 6 | 1 | 0 | 1 | 0 | 52 |
| 2010 | 37 | 1 | 1 | 0 | 0 | 5 | 0 | 0 | 0 | 0 | 44 |
| 2011 | 38 | 1 | 1 | 0 | 0 | 6 | 1 | 0 | 0 | 0 | 47 |
| 2012 | 41 | 2 | 0 | 0 | 0 | 2 | 0 | 1 | 0 | 0 | 46 |
| 2013 | 34 | 4 | 1 | 0 | 0 | 5 | 0 | 0 | 3 | 0 | 47 |
| 2014 | 56 | 3 | 3 | 0 | 3 | 7 | 0 | 0 | 1 | 1 | 74 |
| 2015 | 45 | 4 | 0 | 0 | 0 | 1 | 0 | 0 | 0 | 0 | 50 |
| 합 | 371 | 20 | 16 | 1 | 4 | 39 | 3 | 1 | 5 | 3 | 463 |
| 비율(%) | 80.1 | 4.3 | 3.5 | 0.2 | 0.9 | 8.4 | 0.6 | 0.2 | 1.1 | 0.7 | 100 |



<그림 13> 연도별 저자의 소속기관



<그림 14> 저자 소속기관의 비율

이상의 표와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저자의 소속기관은 대학교가 가장 많아 463명 중 371명, 약 80%가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다음으로 연구기관이 39명으로 8.4%이며, <그림 14>와 같이 그 외 도서관, 박물관, 기타, 과학관, 무소속, 산업체, 기록관과 학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자의 직업이 교수, 강사, 연구교수, 초빙교수, 대학원생 등의 경우 모두 대학교가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으로 대학교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 다양한 소속기관의 저자에 의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1992년과 1997년 및 2002년에 『서지학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동향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서지학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연구 간의 분석 대상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저 논문수, 저자의 직업과 소속기관 및 전공, 주제영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호 비교 대상 수치와 백분율을 추가 및 조절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서지학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표 14> 『서지학연구』 연구동향 연구 간의 비교

| 구분 | 1992년 | 1997년 | 2002년 | 2016년 |
|---------|---|--|---|--|
| 기간 | 1960-1991.1 | 1986-1996 | 2000-2001 | 2006-2015 |
| 학술지 | 관련 학술지와 서지학연구 | 서지학연구 | 서지학연구 | 서지학연구 |
| 저자수 | - | 123명 | 총 51명 실제 18명 | 486명 |
| 논문수 | 603편 | 122편 | - | 463편 |
| 공저수 | - | 1편 0.8% | - | 48편 약 10.4% |
| 저자 직업 | • 소수 증진학자에서 근래 소장연구자 참여의 다소 확대 | 대학/전문 그룹 80명 65% • 교수 23명 28.75% • 부교수 14명 17.50% • 조교수 20명 25% • 전임강사 10명 12.5% → 총 67명 83.75% → 전체 123 중 54.47% → 시간강사 13명 16.25% → 전체 123 중 10.56% → 도서관직원 15명 12.19% → 연구직 3명 3.75% • 대학원생 15명 12.19% +→ 그 외 10명 8.13% | • 대부분 교수 | • 교수 286명 약 61.8% • 연구직 62명 13.4% • 강사 51명 약 11% • 대학원생 40명 8.63% • 사서 22명 4.65% • 전문가 2명 0.43% |
| 저자 소속기관 | - | • 대학/전문 그룹 123명 중 80명 65% +대학원생 15명 12.19% → 대학교 95명 77.24% • 도서관(직원) 15명 12.19% • 연구소 3명 3.75% → 그외 10명 8.13% | • 대학교 | • 대학교 371명 약 80% • 연구기관 39명 8.4% • 도서관 20명 4.43% • 박물관 16명 3.5% • 기타 5명 1.1% • 과학관 4명 0.9% • 무소속 3명 0.7% • 산업체 3명 0.6% • 기록관 1명 0.2% • 학교 1명 0.2% |
| 저자 전공 | - | • 타과소속교수 5명 4.06% | - | • 전공 369명 79.7% • 타전공 94명 20.3% |
| 주제영역 | • 근래 세분 경향 • 서지학 및 서적문화, 신라조선고려 문헌, 일제문헌, 현대문헌, 외국문헌, 고문서 → 고문헌 약 80% | • 관본학 21건 17.21% • 목록학 14건 11.47% • 일반 및 응용분야 10건 8.19% • 고문헌관리 9건 7.37% → 기타관련연구 6건 4.91% • 고문서 5건 4.09% • 도서관사 4건 3.27% • 교감학 3건 2.45% | • 관본학 30건 +57.69% • 고문헌관리 8건 +15.38% • 목록학 6건 +15.38% • 도서관사 5건 +11.53% • 서지학 일반 및 응용 1건 +1.92% • 기타관련연구 1건 +1.92% | • 일반 및 응용분야 173편 약 42% • 관본학 157편 38% • 교감학 24편 5.85% • 기타 20편 4.87% • 목록학 15편 3.65% • 고문서 10편 2.43% • 도서관사 7편 1.7% • 고문헌관리 4편 0.97% |

+: 추가, -: 조절

이상의 표에 나타나듯이 1992년, 1997년, 2002년의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한 『서지학연구』의 연구동향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2년 연구에 의하면 초창기 서지학 분야의 연구는 중진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학술지에 고르게 발표되다가 1990년대 들어 서지학회지에 집중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6년 『서지학연구』 창간 이래 전문 학술지로서 서지학 연구자들의 연구학술지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준다.

둘째, 공저 논문수의 경우 1997년 122편 중 1편 0.8%였던 것이 2016년 463편 중 48편 10.4%로서 13배 정도 증가된 수치이다. 이처럼 공동저술의 증가는 인문학적 경향이 두드러진 서지학분야의 학제 및 융합적 연구라는 새로운 경향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저자 직업의 경우 1992년 중진연구자에서 서서히 소장연구자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7년과 2002년 및 2016년 모두 교수가 가장 많은 직업군으로 조사되었지만 세부적으로 1997년의 경우 교수, 도서관직원과 대학원생, 강사, 그 외, 연구직의 순이며, 2016년에는 교수, 연구직, 강사, 대학원생, 사서, 전문가의 순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교수진과 연구진들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군의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저자 소속기관의 경우 이후 1997년과 2002년 및 2016년 모두 대학교가 가장 많은 소속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저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1997년 조사 결과 대학교가 77.24%였고, 2016년 연구의 결과 약 80%가 대학교인 것으로 미루어 대학교 소속 저자의 연구는 계속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는 저자의 직업 중 교수, 강사, 대학원생 등의 소속기관이 모두 대학교로 구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관이 대학교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저자 전공의 경우 1997년 연구에 의하면 타과소속교수가 5명으로 4.06%이었다면 2016년의 조사 결과 전체 저자 중 서지학 전공 저자는 369명 79.7%이고 타전공 저자는 94명으로 20.3%이다. 이는 순수 서지학 전공 저자에 의하여 대부분 서지학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계속적으로 타전공 저자들과의 공저

또는 관련 분야의 서지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전공 저자의 전공분야는 크게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의학, 과학기술 등 분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저자 전공분야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초기단계 다양한 학술지를 통하여 연구되던 서지학 분야는 『서지학연구』 창간 이래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연구자층의 큰 변화없이 대학교 소속의 서지학전공 교수진에 의하여 단독으로 고문헌을 대상으로 판본학과 목록학 위주로 연구하여 오다가 현재 연구자층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반드시 서지학 전공자라 할 수 없는 대학교 이외의 연구기관이나 다양한 정보제공센터 소속의 연구직과 대학원생 등에 의하여 일반 및 응용분야와 판본학 등의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언

이 연구는 1986년 창간 이래 2015년에 이르러 30주년을 맞이하는 『서지학연구』를 대상으로 서지학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즉, 문헌정보학의 전문 학문영역의 하나인 서지학 분야의 연구 학술지인 『서지학연구』를 대상으로 지난 30년간의 연구성과와 저자관련 부분을 전수조사하고, 최근 10년간의 연구주제 영역과 저자 동향으로 저자수, 핵심 저자수, 전공 분야, 타전공 저자의 전공 분야, 저자의 직업과 소속기관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선행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여 주요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논문과 공저 논문 분석 결과, 우선 1986-2015년의 30년간의 『서지학연구』 수록 논문수는 총 752편으로 매해 평균 약 25편(25.0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간기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공저 논문 분석 결과 1986년 이래 1990년대까지 대부분은 단독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2000년대 들어 1-2편이던 공저의 현상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다. 공저의 저자수를 보면

2인에서 6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중 2인의 공저가 대다수로 89%이다.

둘째, 연구주제 분석은 8개 주제영역(판본학, 목록학, 서지학일반 및 응용, 고문헌관리, 고문서, 도서관사, 교감학, 기타관련연구)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 및 응용분야가 173편(약 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판본학, 교감학, 기타, 목록학, 고문서, 도서관사 및 고문헌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자수와 저자별 논문수 분석 결과, 853명의 저자의 저자별 논문 편수 조사에 의거 실제 저자수는 209명이었다. 1편의 논문을 쓴 저자는 125명(60%)이며, 저자 1인 평균 논문수는 4.08편이다. 1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핵심저자 22명에 의하여 499편(약 58.5%)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넷째, 2006-2015년의 10년간 463명의 저자 중 서지학 전공 저자와 타전공 저자 분석 결과 서지학 전공 저자는 369명(79.7%)이며, 타전공 저자는 94명(20.3%)이다. 즉, 10년간 타전공 저자는 매해 평균 약 9.4명으로 저자 10명 중 약 1명은 타전공 저자였다. 타전공 저자의 전공분야는 크게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의학, 과학기술 등 분야이었으며, 중국근대사, 역사, 미술사, 과학기술사와 같은 역사분야와 민속학, 문화재보존학과 같은 전통적 분야 등의 전공분야였다.

다섯째, 저자의 직업의 경우 크게 교수, 강사, 연구직, 현장직, 전문가, 석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교수가 486명 중 286명(약 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직, 강사, 석박학생, 사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저자의 소속기관을 대학교,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과학관, 연구기관, 산업체, 학교, 기타, 무소속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대학교 소속 저자가 463명 중 371명(약 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기관, 도서관, 박물관, 기타, 과학관, 무소속, 산업체, 기록관과 학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1992년(1960-1991년 1월 대상), 1997년(1986-1996년 대상) 및 2002년(2000-2001년 대상)에 이루어진 『서지학연구』 대상 연구동향 분석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 중 공저 논문, 저자의 직업, 소속기간, 전공 및 연구주제 영역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초기단계로서 다양

한 학술지를 통하여 연구되던 서지학은 『서지학연구』 창간 이래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연구자층의 큰 변화없이 대학교 소속의 서지학전공 교수진에 의하여 단독으로 고문헌을 대상으로 판본학과 목록학 위주로 연구하여 오다가 현재 연구자층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반드시 서지학 전공자라 할 수 없는 대학교 이외의 연구기관이나 다양한 정보제공센터 소속 연구직 석박학생 등에 의하여 일반 및 응용분야와 판본학 등의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1986년부터 2015년의 30년간의 『서지학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동향과 1960년대부터 2001년까지를 범위로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초기에는 도서관학계 학술지에 두루 수록되던 서지학 분야가 『서지학연구』 창간 이래로 전문 학술분야로 성장하여 왔으며, 주 저자층이 대학교 소속의 전공자인 교수로 구성되어 오다가 이제는 타전공 저자와 현장의 전문가와 학문후속세대 연구진에 의한 연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의 주제 영역 또한 판본학과 목록학 같은 고유의 서지학 분야에서 일반 및 응용분야와 같은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공동 저술 또한 증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자 소속기관의 경우 대학교와 도서관이외에 박물관, 과학관, 기록관 등의 현장의 전문가들 또한 서지학 전공 이외의 인문과학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 저자 전공분야의 다양화는 그동안 인문학적 경향에만 머물러 있던 서지학 분야의 융합적 연구로의 발전 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공동 저술의 증가, 다양한 직업군 저자의 등장, 대학교 이외의 박물관과 과학관 등 소속기관 저자의 연구 참여, 타전공 저자와 같은 연구자층의 변화는 매우 고무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서지학 분야의 학문적인 성장과 실무로의 적용을 위하여 연구결과의 관련 연구자와 도서관 등의 현장으로의 반영과 원문의 판본적 분석 이상의 문헌정보학적 및 현대적 활용을 위한 학제적 및 융복합적 연구 등이 더욱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미희, 김정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권 4호(2014). 457-482.
- 강순애. “韓國의 書誌學 研究 傾向: 『서지학연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14집(1997). 1-21.
- 김상호. “한국의 서지학 연구동향.” 『書誌學研究』 8집(1992). 353-362.
- 김성진. “국내 문헌정보학의 이론 활용 연구 동향 분석: 2010년-2014년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권 4호(2015). 179-200.
- 박희진. “Archivaria 리뷰를 통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권 4호(2014). 99-125.
- 서은경. “『정보관리학회지』 연구의 동향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7권 4호(2010). 7-32.
- 서은경, 이원경, 박은경, 이옥성.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통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최근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정보관리학회지와 비교하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권 3호(2015). 315-343.
- 이란주, 임지혜. “한국의 서지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서지학회 발간의 [書誌學研究]에 한정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권 1호(2002). 315-336.
- 장윤미, 정연경. “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권 1호(2013). 25-44.
- 曹炯鎭. “東·西洋 書誌學의 研究領域 鳥瞰.” 『書誌學研究』 11집(1995). 167-188.
- 최희곤. “국제학술지(SSCI)에 등재된 논문을 통한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연구 동향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권 2호(2001). 5-21.
- 한미경. “中國의 書誌學 研究 및 教育.” 『書誌學研究』 12집(1996). 271-317.